

혁명의 전사의 영원한 녀원

폭풍처럼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교향곡과도 같이 장중히 울리는 노래들, 천만의 심장을 역사에 붙여주고 최후승리로 고구루를 향하는 명목들인 《전사의 녀원》,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이 노래들을 각별히 사랑하는 시에는 우리의 력사적 전통을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며 노래로 승리하며는 우리 혁명의 진군길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 김일성 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일련단심의 분출인 이 노래들이 더 높이 울려 수평봉모의 열기가 활화산처럼 타오르지 바라다.

어찌하여 정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렬한 감정으로 이 노래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천만심장의 피줄과도 같은 이 노래들이 더 높이 울리게 바라시는 것일까.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에 대한 열렬한 호모심, 결사옹위의 신념과 투지로 충만된 이 노래들에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영원한 일련단심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다짐없는 총정과 의리의 세계가 응시없이 비쳐있다. 하더라도 이 노래들에는 과연 어떤 감동깊은 력사가 깃들여있는 것인가.

무적의 장군을 명출하신 불세출의 장군이시였을뿐 아니라 한번 펜을 잡으시면 주옥같은 문자와 친밀한 신물로 만년의 심장을 자식처럼 근근이 대적명품들을 창작하신 문학예술의 거장인 어버이장군님, 심도있는 음악을 좋아하시고 아름다운 음악, 참다운 예술을 요구하신 위대한 장군님, 음악을 모르면 정치를 못한다는 확고한 견해와 리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음악의 지위를 비상히 높여주신 천재적인 음악대가이신 우리 장군님, 앞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을 때 이 투쟁을 영도한분이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명장이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참다운 인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당부하시며 음악을 각별히 사랑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들을 남다른 감정으로 사랑하시었다.

음악을 위대한 철학이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우아하게 하도록 만드는 완성이기다. 음악은 바위도 녹이고 참나무도 휘게 하는 힘을 가지고있다. ... 무릇 역사를 등장한 많은 정치가들

과 명인들이 이렇듯 음악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였다. 인류의 음악사는 수많은 음악사조와 류파의 교체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음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여 온 력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장구한 시대를 거쳐 온의 되어온 음악의 참다운 사명과 역할, 그 성격에 관한 공통된 견해는 음악학 학문의 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주로 인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평한것이 일반적이였다. ... 음악은 시대의 메아리이고 혁명적 열정의 분출이다. ... 노래는 혁명승리의 상징이다. ...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 음악에 대한 사랑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혁명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

이처럼 음악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여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다. 한편한편의 명목이 원군만마, 핵무기를 대진한다는 확신으로 그 전기를 누구보다도 중시하시고 더없는 무기로 활용하신 우리 장군님의 특출한 음악세계, 그 심도와 폭은 누구도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 장군님의 첫사랑은 음악이었다. 음악에 각별한 정을 부어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노래 《전사의 녀원》,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과 같은 노래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는 수령님의 노래이다. ...

이것이 바로 개인의 운명과 행복, 미래가 수평과 매여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우레만큼 따르고 높이 칭송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는 소중한 지향이다.》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평강은 한편의 노래를 사랑하여도 절절한 수령님의 감정으로 심장이 끓어오르면 지게는 노래, 수령영생위업을 위하여 한몸바치 투쟁할 열의로 피가 끓여져 하는 노래를 사랑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도하여 세상에 내놓으신 노래,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의 한순간순간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마음 불타는 열망으로 심장이 달아오르게 하는 노래 《전사의 녀원》, 한편의 혁명영화에서 울린 이 노래가 위대한 시대를 상징하는 명목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붙여주고 시대를 들끓게 했었다는것까지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도 전사는 언제나 한마음 장군님 모시고 싸워가는 그 영광 가슴에 넘치네 장군님 인생하시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전사의 녀원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뿐

할일유격대 중대장은 적구공작임무를 받고 장군님의 결을 떠나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가면서, 적들과 싸우다 희생된 사랑하는 영남의의 시신을 휘돌아치는 등판에 묻는 그 준엄한 시각에도 오직 한마음 《장군님 인생하시라》 교전의 녀원을 담은 영남의 노래를 부른다. 혁명전사에게 있어서 생명인 수령에 대한 신념과 의리를 감동깊이 반영한 노래 《전사의 녀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잊지 못할 노래를 뜨겁게 새겨주시었다. 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한 심장의 노래인가. 할일유격대원들은 목숨이 생각에 이르고 육체가 땅속에서 파묻혀도 일련단심 장군님을 따라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엄을 받들어가는 전사들이, 조국을 떠나있는 전사들이 수령님을 그리워하고 수령님의 안녕을 절절하게 녀원하는 그러한 위장과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할일유격대공작단 첩보와 같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였다. 가요 《전사의 녀원》같은 노래는 주체의 신념이며 조선신념입니다. 이는 노래 《전사의 녀원》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열화의 일념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들과 함께 영화를 보시고 영화의 주제 《전사의 녀원》은 아주 잘된 노래이라고 노래에는 영화의 주인공 철호가 간직하고있는 혁명적신념이 아주 강하게 잘 반영되어있다고, 모든 일군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간직하고있는

혁명적신념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훌륭한 음악은 인간으로 하여금 아름답고 교상한것을 사랑하고 지향하게 하며 심장에 불을 활활 지펴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서 자란 천만의 아들딸들의 혁명적신념과 심오한 정서적감정을 체현한 이 노래, 천만의 철의 대오의 가장 불타는 마음,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정과 열, 아름답고 교상한 호모심성의 분출인 《전사의 녀원》, 이 노래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울려 우리 천만군민의 무적의 힘의 원천으로 시대를 격동시켰었다. 인민이 있고 전사들이 있는 곳이면 천리길, 만리길도 웃으며 가시고 위대한 천만군민 전진길도 주저없이 가신 우리 장군님, 가시어는 사랑하는 자식의 집을 찾은 부모의 심정으로 구석구석 보살펴주고 위해주신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 계시는 곳에 한숨기 비운 눈보라를 헤쳐가면서, 찬바람이 불어치지 않아주었으면... 장군님 인생하시라! 어른들도 아이들도 한목소리로 심장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영화와 같은 이 일련단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우리 조국의 날과 날들은 력사가 잊지 못하는 수령호모열기로 달아오르고 일련단심의 장엄한 화폭을 열지 않았었다.

우리 인민만큼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받드는 수령호모, 결사옹위의 성스러운 력사를 눈물겹게 수놓아가는 인민은 세상에 없다는것을 실증한 격동적인 나날이였다. 이 노래로 감상을 뜨겁게 전파하였기에 우리는 그처럼 모진 시련의 언덕들도 과감히 넘을 수 있었고 원자탄보다 더 큰 위력으로 원수들과 싸워 승리 하는 영광을 부를 수 있지 않았었다. 이 노래 높이 부르며 전대미문의 시련을 헤치고 선군의 위력을 떨쳐 온 력사의 체현자이신 우리 영도자이신 수령호모의 숭고한 사상감정이야말로 혁명의 생명이며 혁명의 승리를 펼쳐는 최강의 보검임을 만천하에 심장의 목소리로 말한다.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일련단심 풀이하고 혁명의 길은 영광넘길 길, 죽음도 무릅쓸 줄 없이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이 한몸 바치여가리라 ... 천만의 철의 대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간직하고 그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며 비록 심장의 고통은 멈춘다 해도 그 품에 영생하려는 신념과 의지로 불타게 하는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목욕하여 가지고다니시면서 들으신 이 노래에 깃든 우리 장군님의 남다른 음악세계는 또 얼마나 깊은 여운을 주며 오늘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따르는 길로 천만군민을 고구루를 향하게 하였는가. 세계가 새 세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도는 무역경쟁, 자원쟁탈전이라고 하면서 경제주도를 따라 미친듯이 경쟁할 때 조선에서 더 높이 울린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이 한편의 노래가 누구나 다 부를 수 사랑하는 수령호모의 송가로 시대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명목으로 되가자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5년전 1월 초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는 혁명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이은 이야기》의 주제가입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싸우다 적탄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주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뼈에 새기신 우리 장군님께서시인 사랑하실 수 있고 전인민적인 합창으로 울리게 하실 수 있는 명목이다. 이 노래 높이 울려서 수령은 곧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창창한 미래이라는 강렬한 사상감이 천만의 가슴에 호르게 되었으며 온 나라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기상이 폭풍처럼 번졌 아니었나.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총정다하며 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열화같이 호모하는 원수님 따라 하를 할 때까지 고고한 일념으로 충만되게 하는 이런 훌륭한 일련단심의 노래들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있었다는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지향이고 궁지이다. 위대한 력사가 있어 위대한 계승의 시대가 빛난다.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애독과 호모의 열기가 끓어번지는

어떤 인생관, 생의 철학을 지니었다는 것을 격조높이 선언하며 세계를 진감시키고 류매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만드는가에 신경을 도사리고 날뛰던 적의 아성에 서 핵무기를 타진것보다 더 큰 비명을 울리게 한 사연이었다. ... 뜨거운 마음 하나로 동적 사령부에서 달려나 눈보라치는 광야에서 전사들의 심장 불타네 장군님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운명이다 혁명만능을 우리 살아서 장군님을 보위하리라 ...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하늘가를 바라보며 조국의 운명이고 혁명의 운명인 장군님을 보위하여 혈전의 길을 뚫고 불타는 해적갈매기 세로 심장을 불태우던 첫 세대 혁명가들의 신념과 의지가 세월을 넘어 변천하지 않게 한 노래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에도 참으로 깊은 사연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펜을 드시고 심혼을 쏟으시어 완성시켜 주신 노래이다. ...

장군은 순간이고 복국은 천년, 조국은 한번 배아졌다가도 투쟁을 벌려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혁명의 수령을 잃으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팔장나고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뼈에 새기신 우리 장군님께서시인 사랑하실 수 있고 전인민적인 합창으로 울리게 하실 수 있는 명목이다. 이 노래 높이 울려서 수령은 곧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창창한 미래이라는 강렬한 사상감이 천만의 가슴에 호르게 되었으며 온 나라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기상이 폭풍처럼 번졌 아니었나.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총정다하며 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열화같이 호모하는 원수님 따라 하를 할 때까지 고고한 일념으로 충만되게 하는 이런 훌륭한 일련단심의 노래들을 특별히 많이 가지고있었다는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지향이고 궁지이다. 위대한 력사가 있어 위대한 계승의 시대가 빛난다.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애독과 호모의 열기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 영광찬란한 시대를 반영하여 수령호모의 노래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있다.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존엄한 불려보아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뜨겁게 젖어드는 인민의 심장의 언어가 그대로 노래폭포로 쏟아져나오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이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 《우리 원수님》, 《그이 없인 못살아》, 《우리 어버이》, 《내 심장의 목소리》, 《인민은 부르네 천군만 그 이름》, 《천리라도 만리라도》, 《인정의 세계》, 《별고 싶었습니다》, 《그리움은 나의 행복》... 천만군민의 절절한 정정에 하늘도 땅도 삼가 목매이게 하는 이 무수한 명목들, ...

가사와 선율은 서로 다르지만 거기에 맥박치고있는 공통된 사상감정은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애독,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의 두리에 절절한 정을 성취할 수 있고 일련단심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천만군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이다. 바로 이 신념과 의지가 반영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노래가 풍만한 화원으로 아름답게 펼쳐지고있다. 《조선에서 울리는 훌륭한 노래들의 가사와 선율은 그대로 비친 숭고한 사상감정은 자기의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호모심과 일련단심이다.》, 《조선에서의 오빠의 이름》은 위대한 시대의 반영에 대한 일대 과시이다. ...

잠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객들도 이런 경탄을 금치 못하였는데, 매일 시종 감동적인 현실에 탄복하여 영도자에 대한 호모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는것을 실지 체험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동된 심정을 어떻게 담고 글로 다 전할 수 있나. 저 멀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불멸의 혁명송가로 자기의 수령을 받들어 모시고 혁명의 노래와 더불어 광휘로운 력사를 아로새기는 조선혁명을 수평봉모의 노래들이 승승장구는 혁명으로 영도하시는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 우리 천만군민의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의 분출인 수령호모의 노래에 대해서 시대가 비끼게 하고 수령호모의 열기로 백두산대주의 위력을 펼쳐주시는 정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공적은 세계혁명을, 음악사와 더불어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애독과 호모의 열기가 끓어번지는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애독과 호모의 열기가 끓어번지는

정애하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애독과 호모의 열기가 끓어번지는

절세 위인들과 녀성들

력사적 사변
해방된 조국땅에서 력사적인 남녘정동권법령발포의 환희가 차넘치던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일군들로부터 오랜 세월 잊박히 살아온 녀성들이 희망찬 새 삶을 안겨주신 수령님께 감사사를 드리며 새 조국건설에 헌신할것을 결의해나서고있다는 사실을 알고받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남녘정동권법령이 실시됨으로써 조선녀성들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새 생활창조를 위한 길 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하나의 큰 사변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이말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남녘정동권을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행사해나갈때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우리 수령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녀성들이 할일혁명투쟁시기 조국의 해방과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남자와 같이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용감하게 싸운 조선인민혁명군 녀전사들을 처럼 낡은 사상과 생활인습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 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우리 당의 자랑이며 궁지
어느때 창조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성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시던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자라온 당의 영도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조국의 녀성들이 정말 장하다고 교시하시였다. 대한 안방에는 우리 녀성들에 대한 자랑과 궁지가 한껏 넘쳐흐르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선군혁명투쟁시기에 녀성들이 이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시

정견한 마음을 안고 그이를 우리르며 일군들은 우리 당의 자랑이며 궁지인 녀성들 모두가 ...

은정어린 조치
첫 어머니날에 즈음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회를 준비하던 날에 있던 일이다. 그때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문제의 하나가 첫머리어머니를 가진 대표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

사랑의 금방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일성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들의 생활형편도 하나하나 세심히 알아 보시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께서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께서는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만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18일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달을 이끌어온 40대를 맞으며 열리는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게 된 3대혁명기수들과 선군시대공로자들, 일군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대회참가자들을 만났다.

박봉주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 현지료해

박봉주총리께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세포지구를 글지의 대규모 축산기지로 전변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당의 현대한 구상에 의하여 세포, 이천군의 곳곳에는 이제 로운 축산기지정형들이 펼쳐졌다. 총리는 축산물종합가공공장, 소목장, 축산학연구소, 과학자살림집, 《애국물》종자보관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시공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판계부문 현진회의에서는 축산물종합가공공장건설에 역량을 집중

하고 통합산체계를 구축하며 축산기지를 운영을 과학화하고 세포지구의 자연기후적 조건에 맞게 《애국물》을 널리 퍼지기 위한 대책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한편 총리는 원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면서 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건설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설계와 시공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철도건설을 전망성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박봉주총리 원산지건설정형 현지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신홍철 외무성 부총리 겸 판계부 장관인 일군들과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신홍철 외무성 부총리 겸 판계부 장관인 일군들과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신홍철 외무성 부총리 겸 판계부 장관인 일군들과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신홍철 외무성 부총리 겸 판계부 장관인 일군들과 쿠바

서사시

백두산 영웅청년화

- 이 서사시를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원들에게 드린다 -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이득한 태고의 세월
잠들었던 백두산용암이
청춘활화산으로 다시 뿔어올라
백두대산백우에
또 하나의 메추리를 얹었다는가

태질하는 눈보라에
하늘땅도 얼어붙는
북방의 사나운 겨울을 이겨내며
장군님 유흔을 지켜가는
불수룩 미덥고 장한 청년들

억년바위도 녹이는 불길을 우리 지퍼
리라
그 불길로
대양에도 불을 달리라

소리없는 감격의 열과 끓이는데
10월의 백두바람에 외무지락 날리
시며
연락에 나서신 김정은장군

십여년세월 청춘을 헤쳐온 눈보라를
마음속에 다 맞으시며
한자욱 또 한자욱

한데 모으는
하얀 새 마태

가장 귀중한 재부로 빛내주신
우리 원수님

휘 휘-
구름발을 휘감고 치솟은 청춘언제
쏟아져내리는 태살에
거대한 가슴을 감옥처럼 번쩍이는
신비로운 그 용자

그들속엔 있구나
눈속에 권 만병초처럼
단발머리 날리며 웃음짓는
세쌍둥이의 그 모습도

-우리의 진투목표는 청년절까지!
이 나라 청춘이 태어난 그날이
청춘언제의 생일이 되게 하자

평-
가슴과 가슴들을 두드리며
백두대지의 하늘을 흔들며
불우회마냥 울려 퍼지는
원수님의 그 음성
-미더운 청년전위들!

기승치는 북방의 흑한속에서
두터운 얼음장을 부시며
사나운 강줄기를 길들이며
준공의 이날에 달려온
그 돌격로들을 다 걸어보시는가

마태전의 앞장에서 달리다가
해진 마태 부어잡고 안타깝던
쳐너야
오늘은 웃음꽃 활짝 폈구나
화려한 새옷을 펼쳐입고 나섰단들
그 웃음보다야 더 밝아라

그 혁명성, 희생성, 애국심을
청년돌격정신으로 불려주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이어주셨
나니

이 나라 청춘들의
기개와 모습을 알아
그리도 억새고
그리도 멧지고
그리도 장한것이나

은혜, 충실, 보답
유다른 그 이름처럼
그 작은 가슴들에 간직한 사연도
남달리 뜨거운 처녀들이

어둠을 황황 태우는
희박의 바다
손에 손에 주켜든 그 쾌활한
청춘들이 가슴에서 꺼내든
심장의 불덩이

아, 그리고 그리웠던 그 음성
어려울 때도 힘겨울 때도
언제나 심장의 벽을 울려
새힘을 주고 용맹을 주던
아버지의 정결은 그 목소리
그이는 다 안고계셨나니

격정의 120여일
그 하루하루의 전투일보가
원만국가가 실린
그이의 집무탁우에 놓이고
기적의 불길 거세한 백두전역의
낮과 밤을
그이는 다 안고계셨나니

네 웃음앞에 젖어드는 이 마음
너희들의 나이를 세어본다
계절따라 새옷을 차려입고
깨끗 단장하고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싶은 그
나이

원수님 열어주신 답사길따라
들어서고들어서는 대오
영웅청년들의 군상앞에서
혁명가의 선서를 심장에 없으며
영웅청년들의 대오는 끝없이 태어
나리라

애국의 피땀인양 불같이 달아오른
청춘들의 힘이 받아들여올린
영웅청년언제는
백두산대국의 빛나는 국장의 모습
그대로 비껴안았는가

오늘은 다 말하리라
하늘도 슬픔의 눈발 날리던
과년들의 그 12월
장군님 슬겉어린 이 건설장으로
탄원의 첫걸음 때던 그 이야기

백두산에
청춘분화가 거러올랐다
-오르자 백두산으로!
오르자 완공의 언제에로!

-오늘 우리는
은 나라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속박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을
은 세상에 선포하게 됩시다

언어로 퍼붓는 장마비
시시각각 불어나는 급한 물살은
당장이라도 다리를 휩쓸어버릴듯
혼서와 새멘트를 실은
대형차들이 박힌듯 멎어섰다

봄날의 꽃길보다
혁명의 눈보라길에서
더없는 행복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이
백두청춘의 아름다움

원수님 열어주신 답사길따라
들어서고들어서는 대오
영웅청년들의 군상앞에서
혁명가의 선서를 심장에 없으며
영웅청년들의 대오는 끝없이 태어
나리라

언제여, 너는
백두산영웅청년선화의 산아
승리를 노래하는 전설의 가수
말하라 왜지라
이 기적의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백두산영웅청년선화의
위대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오늘은 다 말하리라
하늘도 슬픔의 눈발 날리던
과년들의 그 12월
장군님 슬겉어린 이 건설장으로
탄원의 첫걸음 때던 그 이야기

영웅적 위훈도 혼연한 일로 된
격정장
아득한 언제에에 발판을 타고
매질소리 울려가는 나이린 돌격대원
고향집 트랙의 나무가지나 타고
없었듯
붙어넘기는 휘파람소리도 즐겁다

만세! 만세의 폭풍
격정에 호즈김에
목소리마저 갈라진
울음섞인 만세소리
백두대지에 메아리치는 승리의 만세
소리

보급로가 끊어진 전투장에
물같이 점점 떨어지거던 그 시각
누가 명령을 내렸더나
바람을 허리에 휘감고
사름치는 강물에 뛰어드는 돌격대
원들

빙설천지에서 생을 불태운
선열들의 그 넋을 이어받은 청춘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
아름다우리라 매일의 청춘들도

자부하나라
청년돌격정신이 창조된 곳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태어난 백두산
신군청년문화의 고향도
성스러운 백두대지

눈부리 아득해라
신기루마냥 솟구쳐오른
영웅청년언제의 그 지대
이 마음은 천산성악
백두산상에 오른듯

이름은 나이는 또 주소는...
지휘관들의 물음앞에
소중히 꺼내놓는 세계의 금반지
아, 그것은 태어나 첫날
세쌍둥이의 요람에
우리 장군님 놓아주신 금반지

영웅적 위훈도 혼연한 일로 된
격정장
아득한 언제에에 발판을 타고
매질소리 울려가는 나이린 돌격대원
고향집 트랙의 나무가지나 타고
없었듯
붙어넘기는 휘파람소리도 즐겁다

준공의 붉은 테프알에
금빛가위를 손에 드시고
저 멀리 금수산의 하늘가로
뜨거운 눈길 없으시는
원수님의 그 마음

물살에 휘부러졌다가
다시 솟구쳐 일어나
나무방울을 에워싼 불굴의 그
모습들
-우리의 어깨를 넘어
전진하라 대오여!

이렇듯 장한 청춘들이어서
우리 원수님
은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고싶으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주고 또 주시는 사랑

원수님 열어주신 답사길따라
들어서고들어서는 대오
영웅청년들의 군상앞에서
혁명가의 선서를 심장에 없으며
영웅청년들의 대오는 끝없이 태어
나리라

눈부시구나
언제야해 펼쳐진
북방평의 별세상 별천지
천고밀림을 꿰뚫어 뻗어간
은빛승전선탑들

물어 무엇하랴
그 금반지가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자재로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다 말해주고있는데야

한결음이라도 뒤지면
원수님 품에서
천길만길 떨어지는것만 같아
순간이라도 주저않으면
운명(의 그 손길 놓는것만 같아

고고성을 터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붉은 태플이던가
10월의 바람결에 길길이 날리는
준공의 테프어

어깨와 어깨에 받들린 다리위로
한치한치 전진하는 자동차들
총탄이 비발치는 강물속에서
육단교각이 되어 포차를 견내우던
영웅전사들의 그 모습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
유유히 노니는 물오리떼들
밀브리 감자꽃보다 절벽은 등반을
지나
새 집의 주인들이 보급자리를 편
그림같은 새 마을들

이제는 나침반으로 자란 그 모습
몸에서 꺼내보이는 붉은 흙주머니가
또다시 우리 마음을 적시누나

한치 또 한치
언제에로 오르는 그 길은
그리고 그리운
원수님 품으로 가는 길
백두산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

금빛꽃과 빛나는
강성국가의 대문도
이렇게 열어제끼리라
백두의 칼바람속에 다지고 버린
청춘의 억센 힘
청춘의 슬기로

시두수는 통째로
불물이 끓던 전회의 락동강
엄격을 내린 청춘들의 그 모습은
오, 결사옹위의 억년성벽
백두산악이었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신혈들 넋이 어린 백두대지에
뿔뿔이 후손들이
후더운 땀을 뿌려 펼쳐놓은
회한한 천지개벽이여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저쳐 쓰러졌다가도
러갈라진 두손으로
몰탈마테를 더듬어 찾았다
억척같이 다시 일어나
언제에로 치달아오른 돌격대원들

길이 새겨안이라
이 나라 청춘들이
우리 원수님 품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끈결음을 내디딘 이날을

산발을 쟁쟁 휘흔드는
억척같은 그 의지
-불가능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단숨에 뛰어고 일떠서리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그리워라 그리워
언제란간에 두손을 얹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영상

그 사연깊은 흙주머니
금은보화에 비기라
수령님들의 승결을
생의 피줄기로 안고 사는
이 나라 청년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이어

모탈마테에 기대어 폭압에 든 돌격
대원들
팍팍은 어깨와 가슴들을
부드러이 쓰다듬는 안개는
어머니산 백두산이 감싸안은
로근한 안개이불이런듯

아, 무궁장찬한
청년강국의 미래처럼
가없이 푸른 하늘 눈부신 햇빛
원수님 따라 나가는
조선청년들의 광활한 앞길에
우리 장군님 축복의 미소를 뿌리
신다

장하구나
고향이나 돌격대로 나올 뻔
자그마한 배낭도 어깨에 무거웠
건만
오늘은 거창한 언제를 하늘가에
들어올린
백두산이 키워낸 창조지인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영웅청년언제를 안아올린
돌격대원들이 장하시어
격정의 시구절을 읊으시던 그 음성
하늘가 저 멀리 메아리쳐오는가

그 정신 그 넋이
기적의 활화산이 치솟게 한
무한한 힘이었고
신념의 기둥이었고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이었으니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아, 무궁장찬한
청년강국의 미래처럼
가없이 푸른 하늘 눈부신 햇빛
원수님 따라 나가는
조선청년들의 광활한 앞길에
우리 장군님 축복의 미소를 뿌리
신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그 사연깊은 흙주머니
금은보화에 비기라
수령님들의 승결을
생의 피줄기로 안고 사는
이 나라 청년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이어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위대한 행장의 가슴에
일일이며 사들치는
그 무한한 서정의 바다에서
우리 부르는
백두청춘송가는 시작되거니

약진의 걸기를 날리며
질풍처럼 달리는
백두산의 천군만마들
원수님은 공적명령을 내리신다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우려오누나
이 백두전구에
첫 자욱을 새기시던
우리 원수님의
발걸음소리 발걸음소리

그날부터
은 나라 길과 길들의 리정표들은
백두산!
그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 길가에 끓이치는
중강의 대오, 탄원의 대오
그위를 따라신 지친의 물결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밀고 힘찬 전진걸의 폭압에서조차
북방천리 백암명을 넘으시던
우리 장군님

군대와 인민, 청년들이 어깨걸고
변함없는 결연
백두전역은 그대로 불도가니
익축과 전후방이 따르없는
가렬한 대적전장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백두전구의 아들딸들이
얼마나 보고싶으시었으면
땅크를 타고서라도 가자고 하시며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제일먼저 찾아주시었으랴

서두수의 밤하늘을 태우며
우동불이 타올랐어라
그 두리엔
수백수천의 추켜든 쾌활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젖어드는 원수님 안팎에
다가서며 인제드는 언제는
장군님 정이 어린 살붙이
장군님 남기신 유물자발전소

이제는 나침반으로 자란 그 모습
몸에서 꺼내보이는 붉은 흙주머니가
또다시 우리 마음을 적시누나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젖어드는 원수님 안팎에
다가서며 인제드는 언제는
장군님 정이 어린 살붙이
장군님 남기신 유물자발전소

이제는 나침반으로 자란 그 모습
몸에서 꺼내보이는 붉은 흙주머니가
또다시 우리 마음을 적시누나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젖어드는 원수님 안팎에
다가서며 인제드는 언제는
장군님 정이 어린 살붙이
장군님 남기신 유물자발전소

이제는 나침반으로 자란 그 모습
몸에서 꺼내보이는 붉은 흙주머니가
또다시 우리 마음을 적시누나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흙이
에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원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시겠 같아
추위도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노래없이 시없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을 웃음으로 헤쳐온 락원가들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청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제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품에 안으셨다!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치 이뤄이어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시던 영광의 오늘날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고
승리의 10월에도 통풍같이 떠밀렸
다고

3

백 두 산 영 웅 청 년 신 화

4 면 에서 계속

붉은기바다에 되찾히는
《적기》의 노래소리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끓이며
당을 따라 영웅히 한걸음 걸
청년대군의 발구름소리를 들으시
여라

그이 심중속에
별뿔의 군상처럼 떠오르는 모습들
아득한 세월 저 멀리
혁명의 님을 올린 첫 기슭에서
한편의 노래 부르며 첫걸음 댈 전위
투사들

밀림의 우뚝봉에서
홍겨운 하모니카반주에
총대총을 펼치며
승전의 기쁨을 터치던 빨찌산의
그림이
10월의 이 백두대지에 펼쳐진듯

그날의 빨찌산용사들
그 후손들이 오늘
수백만의 투사로 자라나
백두산악우에 우뚝 섰거니

조선혁명의 발원지 백두산에서
하늘땅을 뒤흔드는 청춘들의 노래
청년대군의 그 기상
노도로 솟구치는 그 그림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활력이며
미래!

축복이 온다
선열들의 피어린 전구에
만년언제를 쌓아올린 그 위훈
저 하늘가에 아로새기며
축복의 불보라가 터져오른다

개척지에 떠오르던 우뚝불
엄동설한에도 흠뻑내리던 땀방울
완공된 언덕에 솟던 기쁨의 눈물을
평평한 불꽃으로 수놓는 축복이

정일봉아래 펼쳐진
사회주의 무용도원의 첫 동네
백두산마을의 황홀한 불야경이
천색만색 불보라에 어찌
하늘가에 아름답게 흐르나

오, 축복이 너는
우리 원수님
자랑스런 청춘들을 두팔로 안아올리
시어
저 하늘에 빛내주시는 청춘별무리
애국정령의 땀방울 아낌없이 바쳐
가는
청춘들의 힘에 대한 아름다운 송가

저 하늘의 꽃보다 더 많은
청춘꽃들이 피어오른다
세상을 돌리보면
청년들이 우뚝하고 어둔인 나라들도
맑건만
이 땅에선 자랑이고 광명이며
밤하늘도 저렇듯 밝구나 아름답
구나

축복성 그것은
애국심으로 이글거리는
백두정충혼들이
분화기를 터치는 소리
결사투위의 위성들이
불꽃기를 내뿜으며 솟구쳐오르는
소리

원수들은 진흙하러
승리와 기적의 칼바람
백두산칼바람속에 버려진
사상의 대군
신념의 대군
혁난에도 비김수 없는
김정은장군의 영웅청년대군앞에

백두의 산악처럼 억세고
백두의 이갈처럼 강직하고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한
우리 당의 전위투사들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원수님 마음속에 언제나
기둥으로 억척의 지지점으로 있는
백두정충들의 이야기
언제건설의 이야기만이 아니거니

역사여, 너의 새 세지를 펼치라
우리의 이 시대 축복처럼 터치어
너의 갈피를 금문자로 새기리
세상에 다시 없을 청년들의 애국
신화들

일촉즉발의 전쟁전야
8월의 그 시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고
깊이 깊어간 최고사령부의 밤
작전탁에 쌓였다 낮아지고
또 쌓이는 문건들
전선장병들과 인민들이 보내온 편
지들...
그이끼신 반갑게 펼치시었다
백두정구의 청춘들이
전선탄환을 펼치던 편지

당중앙을 옹위해나신 영웅청년들
백두산을 날아내려
단숨에 남해까지 짓쳐나갈 그 기상
단숨에 날아내려
단숨에 남해까지 짓쳐나갈 그 기상
단숨에 날아내려
단숨에 남해까지 짓쳐나갈 그 기상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그 정은 더 깊어져
원수님 마음속에
그 이름은 일당백병사
그 이름은 미더운 전우
그 이름은 열혈의 동지

전선탄환을
원한 총이 아닌
언제에
심장의 붉은 피로 쓴 용사들

마지막 정대를 총창처럼 번뜩이며
언제를 다져올렸다
오, 그것은 신념의 성세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청춘성벽

전진도발자들의 미친 광증을
물거름으로 만들고
대수리를 안아오신 원수님
백두정구에서 보내온
언제건공의 보고를 기쁘게 받으시
었다

해빛도 유난히 눈부신
10월의 김일성광장
백두백성의 조선로동당을 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할 청년대군의
신념이
도도히 굽이치는 경축광장

발걸음소리가 정쟁 울리며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총대가 행진
해간다
공화국영웅메달이 빛나는
기발을 펼칠 날이며

백두산호방이들이 감기를 새우고
땅을 구르는 발걸음소리
천지를 떨치는 마소소리
광장에 울려 퍼지는듯
백두산의 번개를 치며
우리를 치며 나간다

우리 원수님 안광에
뜨거운 정미소 빛난다
한말뚱에 달려내려가
도다시 꺼안아주고싶으신 그
심정

높이 드신 거룩한 손길에 닿아
오래도록 저어주신다
한별만세를 부리며
조선혁명의 진군로를 개척한 청년
전위들
빨찌산의 그 피를 용용히 이어
가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
태양기 전투에 날리며 진군해간다

피끓는 청년대오
최후승리를 향한 돌격진로에
창파를 치우기며 쾌속으로 질주
하는
청년대군의 무적함성앞에
광활한 미래가 마주 달려온다

세계여 보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군의 기상을 보라
김정은장군 따라 하늘땅 끝까지
폭풍처럼
승리와 영광의 대오를 보라

금빛의 대하로 적류하는
무적필승의 청년대오앞에
백두명왕의 위대한 축복이 울려
온다
- 존엄높은 백두산청년대군의
주인들,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
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백두산!
영웅조선을 낳고
영웅인민을 낳고
영웅청년신화를 낳은
성스러운 어머니산

신비로운 전설의 산이며
청년장군 빨찌산 김대장
산성에 올라 장군님이
눈부신 재광을 삼천리에 휘부릴 때
그대의 영웅신화는 시작되지 않았
더나
세기와 세월을 넘어

백두산장군들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승리와 기적의 력사민을
한가슴에 새겨안은
혁명의 성산

만년설 미인 산정에
청춘활화산을 터치며
위대한 청년강국을
세계우에 우뚝 받들어올렸거니
젊음을 넘쳐 약동하는
조선의 미래는 천천해라

신호탄총을 울린다
새 공적진로를 차지하고
새로운 공적속도를 창조하며 나아
가는
천만대오앞에
우리 원수님 울리신 신호탄총성

그 총성의 메아리를 안고
천하를 굽어보며
김정은장군의 산, 백두산은 웨친다
-나의 용감한 아들딸
500만 청년대군이여
폭풍처럼 내달리라
광활한 미래를 향하여 총배진
하라

위대한 백두명왕 발걸음따라
기개높이 진군하는 청년전위들
백두백성의 신화를
새대와 새대를 이어 떨치며
모든 승리와 영광을 앞당겨 맞이
하리라
오, 백두산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을 안아키우신
위대한 김정은장군 만세!
우리 당의 청년중사시사 만세!
백두산청년대군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로씨야련방 사법성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내년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8일 알렉산드르 크노
발로르 사법성을 단장으로 하는

당 창건 70돐 기념

4. 15기술혁신들려대 전국기술혁신경기 진행
당창건 70돐기념 4. 15기술
혁신들려대 전국기술혁신경기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
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을 철저히 관철
하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의
불씨를 일으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조직된 이번 경기에는 전국
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4. 15
기술혁신들려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기간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진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술혁신목표를 세우고 대동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각지 돌격대들에서는 경기기간
6만 3 000여건의 가치있는 기
술혁신안을 연구도입함으로써
주체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가에 큰 공익을
주었다.
남흥청년화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무산광산
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련합
기업소, 순천지구청년관련합기
업소, 북상화력발전련합기업소
등의 중요공업부문의 물질기
술적대도를 더욱 강화하여 나
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기술혁신을 이룩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총동원력을 발원시킨
출하사업소, 강계포도출공장,
운전군 보석형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돌격대원들은 과학
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중요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현대화,
자동화하였으며 중앙위원회
국가와 함흥도발적공장의 돌격대
원들도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
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
었다.
4. 15기술혁신들려대 전국
기술혁신경기총화모임이 18일
인민문화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각부총
리, 관계부서 일군들, 모범적
4. 15기술혁신들려대원들과
현장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
였다.
총화보고를 개최한 조선과학
기술총련방 중앙위원회 부위원
장이 하였다.
경기순회가 발표되고 우수한
단위들에 우승기와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로씨야련방 사법성대표단 해방탑에 화환 진정

알렉산드르 크노발로르 사법
성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사법성대표단이 18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병들이 서있었다.
우상철 최고재판소 부소장,
관계부서 일군들과 알렉산드르
마예고라 주조 로씨야연방 특
전전대사, 대사관직원들이 여
기에 참가하였다.
화환진정목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인도네시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안방일 우리 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13일 조코 위도도 인도
네시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께 보내시는 따뜻한

국제유술련맹 위원장이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순방
호 체육성 부상이 전승하
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총출력을 일으켜 나
갔다.
《녀성은 꽃이라네》, 《홍라
리》, 《영양의 사계절》을 비
롯한 경쾌한 노래선율에 따라
어깨를 들먹이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당의 품속
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데없는 긍지와 행복감이 어렸
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이 땅
우에 강성부흥의 찬란한 미래를
만드신 안아온 은 나라 천만
민의 드림없는 의지를 반영한
《당을 따라 별처럼 날도 살리》,
《행복의 태양》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자 무도회 분위기는 고
조를 이루었다.
대를 이어
누리가 가는
신근 시대
조선녀성들
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
의 분출인양
《인민이 사
랑하는 우리
령도자》 등
의 노래소리
가 무도회
에 메아리
쳤다.
《인민의
나라》의 노
래로 끝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되었다.
전시회에서는 김일성총통대
리, 김책공업총합대학, 평양정보
기술국, 국가과학원 자동화연구
소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들과
프로그램개발단위에서 내놓은
우리 조 조직체계용 응용프로그
램들과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
화에 필요한 요소 장치들이 참
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생활장병이 고공공장, 복합지
구한판련합기업소, 평양화력
발전련합기업소 등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영업무활용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높인 성과자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연 및 전시회기간 건
보기술제품들의 교류와 봉사사
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메막식이 18일 3대혁명전시
관에서 있었다.
김용진내각부총리, 최상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진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서 일
군들, 프로그램개발자들이 여
기에 참가하였다.
메막식에서는 먼저 심사결과
가 발표되고 특등을 한 특혜운성
에 순회우승기가 수여되었다.

합경남도인의 공장, 기업소들
과 협동농장들 그리고 바다가양
식업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수발해 온 이번 대회에 참가하
였다. 특히 '우리의 초침속에 사랑
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최경수동무를 비롯
한 합경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군
들과 감독원들이다.
언제나 그들이 민시림의 존경을
받고있는 것은 단지 자기 업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때문이다.
당에서 바라는 문제라면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맡아하고 그것을 풀기 위하
여 애써 노력하는 애국자들
이기에 모두가 스스로일이다
따라 존경하는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일군들은 누가 보지않건
진심으로 당을 받드는 혁명의
뿌리가 되어야 하며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하여 흘린
눈물은 찬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어느날
이었다.
그날 저녁 차량감독소의 한
사무실에서는 이번 목소리가 울
려나왔다.
《바다가양식면적은 대대적으
로 늘이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합경남도에 주신 과업입니
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도인의
수산부문을 적극 투자하는것을 제
기합니다.》
소장 최경수동무의 절절한 호
소는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
원들의 가슴가슴을 새지게 울

언제나 부강조국의 밑뿌리가 되여

합경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어느때보다 더욱
합있게 벌어지고있었다.
그 순간 최경수동무에게는
피륙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차량감독소부에서 일
하는 자기들이 운수일군들과 운
전사, 운전수들을 많이 대상하
는것만큼 그들에게 호소하면 파
다이야람은 얼마든지 회수할수
있다는 생각이였다.
그날 저녁 차량감독소의 한
사무실에서는 이번 목소리가 울
려나왔다.
《바다가양식면적은 대대적으
로 늘이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합경남도에 주신 과업입니
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도인의
수산부문을 적극 투자하는것을 제
기합니다.》
소장 최경수동무의 절절한 호
소는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
원들의 가슴가슴을 새지게 울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18일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참관하였다.
선원들은 우리 인민이 최상의
수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직접
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해
《무지개》호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적인 봉사선
으로 훌륭히 건조된데 대한 해설
을 들으면서 봉사선의 내부를
돌아보았다.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
에서 실현되고 모든 요소소스가
【조선중앙통신】

드들의 가정정형을 료해하던 최경수동무는 2대의 트랙도

드들의 가정정형을 료해하던
최경수동무는 2대의 트랙도
르가 가동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농정일군들을 만나 시연을 알
아보니 필요한 부속품들이 미처
보장되지 않아 그렇다는것이였
다. 그때 농정일군들은 차량감독
소일군들이 그제서서 차량감독
소일군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도록 하였다. 그
때부터 차량감독소로는 매
없이 파다이야를 실패하게 되
었으며 도인의 수산부문에서는
해마다 수백개의 파다이야가 보
내어지게 되었다.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
들의 소행은 도인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감동
시켰다.
그 누가 보아도 없어도 나라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잘살면
그만이라는 순결한 마음을 지니
였기에 그들은 도인의 협동농장
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새해농사자비전투가 한창이
던 지난 2월초 어느날 감독
원 박재형동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온 순결
한 마음을 안고 이 사업을 스스로
맡아안기로 결심하였다.

그날 저녁 최경수동무는 일군
들과 감독원들에게 구체적인 분
담을 주고 해당 단위들로 떠나
보냈다.
다음날 최경수동무는 자신부
러가 앞장서서 해당 부문의
운수일군들과 운전사, 운전수들
에게 분점제들의 기술검사와
경에 생기는 파다이야를 수습해
줄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 군을
담당한 감독원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도록 하였다. 그
때부터 차량감독소로는 매
없이 파다이야를 실패하게 되
었으며 도인의 수산부문에서는
해마다 수백개의 파다이야가 보
내어지게 되었다.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
들의 소행은 도인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감동
시켰다.
그 누가 보아도 없어도 나라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잘살면
그만이라는 순결한 마음을 지니
였기에 그들은 도인의 협동농장
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새해농사자비전투가 한창이
던 지난 2월초 어느날 감독
원 박재형동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온 순결
한 마음을 안고 이 사업을 스스로
맡아안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의 가정정형을 료해하던
최경수동무는 2대의 트랙도
르가 가동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농정일군들을 만나 시연을 알
아보니 필요한 부속품들이 미처
보장되지 않아 그렇다는것이였
다. 그때 농정일군들은 차량감독
소일군들이 그제서서 차량감독
소일군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도록 하였다. 그
때부터 차량감독소로는 매
없이 파다이야를 실패하게 되
었으며 도인의 수산부문에서는
해마다 수백개의 파다이야가 보
내어지게 되었다.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
들의 소행은 도인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감동
시켰다.
그 누가 보아도 없어도 나라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잘살면
그만이라는 순결한 마음을 지니
였기에 그들은 도인의 협동농장
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새해농사자비전투가 한창이
던 지난 2월초 어느날 감독
원 박재형동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온 순결
한 마음을 안고 이 사업을 스스로
맡아안기로 결심하였다.

우울 10월 하순에만도 차량

우울 10월 하순에만도 차량
감독소에서는 수백의 차량을
탈착장들에 제때 운반해주어
날날하실을 막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그날에는 트랙도르들에 처
차식시공기를 도입하도록 함으
써 해마다 많은 연유를 절약하
게 한 사실도 있고 애국인민들과
영웅군인들의 생활을 친화적의
정도로 따뜻이 돌봐준 이야기도
있으며 인민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
으로 여기고 전심으로 도와나신
감독들은 이야기도 있다.
오늘도 최경수동무를 비롯한
이곳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
들은 부강조국건설의 밑뿌리가
될 한마음을 안고 광심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백년속적의 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삼천리강에 땅국의 비운을 몰아온 1905년의 11월 17일을 잊지 않고있다. 일제의 날조적인 《울사5조약》의 날조로 하루이튿에 국권을 우리에게 강탈당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비애에 떨었는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날조적인 《울사5조약》의 날조, 참으로 그것은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당한 가슴아픈 치욕이고 비극이었다.

영리한 아물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그날로부터 110년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은 일제의 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그 대가를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의지로 가슴뛰어가고있다.

일제에 의한 《울사5조약》의 날조는 가장 모욕하고 날조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국권강탈범죄이다.

조약은 일제의 강도적본성과 침략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었다.

《울사5조약》은 사실상 조약의 명칭도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환국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의 정식문서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무효의 협정문서이다.

잔악무도한 일본강도들이 총칼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무시하며 《울사5조약》을 날조한것은 세계역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국가범죄 행위이다. 이 조약 아닌 《조약》에 의해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무시하며 백만민족은 일제 거꾸어보지 못한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들쓰게 되었다.

일제침략자들은 식민지통치기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는데 제로, 투옥, 학살하였으며 84,00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

장년들을 《징병》, 《징용》, 《보국대》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와 고역장에 끌고가 비참한 죽음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치명적인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민족의 뇌와 민족성까지 말살하기 위하여 귀중한 제본인 역사책들을 수많은 배에야 불살라버렸으며 옛무덤들을 도굴하고 지어는 우리 땅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지간지 없애려고 발악하였다.

홀려온 인류역사에는 외배침략자들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한 나라와 민족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 일본제국주의자독재정권과 사기협착 등 날조적인 방법으로 침략죄악을 날조공포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몹시러치는 식민지정복정치를 실시한 잔인한 침략자를 알지 못했다.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에게 천추에 가실수 없는 울분과 복수의 한을 남긴 조선민족의 백년속적이다.

일인이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을 부정하며 대조선적대적책동에 미쳐날뛰는것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결산해야 할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범죄이다.

일본은 메이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들의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지 않고있으며 배상도 거부하고있다. 오히려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범죄의 인정이 《스메르자기를 확대하는것》으로 된다는 꾀변을 놓아우며 침략범죄를 전면외국, 전면부정하고있다.

일본강도들의 독도강탈범죄도 정절에 달하고있다.

일본강도들은 《대제사(독도)의 날》이라는것을 제정해놓고 해마다 행사하는 음을 벌리고있으며 독도가 일본땅이라

는 과별치한 주장을 2015년관 외교청서에도 조야박았다. 그런가 하면 과거 조선인간제정용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버젓이 등록하며 침략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다.

더욱이 참을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박등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도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집집이게 메달하는 한편 군국화를 다그치면서 제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있는것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도에 《집단지사위권》행사를 운운하며 해외침략을 위한 《안전보장관련법》을 꾸며내고 그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의 첫 대상은 다름아닌 조선반도이다. 《대동아공영계획》의 옛몸을 실현하고 또다시 조선반도를 뒤흔들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일본의 침략적야망은 그야말로 사납게 꿈틀거리고있다.

현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일본의 범죄적인 침략사실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입증해두고있다.

가장중요한것은 일본의 로골적인 제침략책에 남조선당국의 수직서른은 친일시대때공약도 하여 적극 조장되고 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현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반공화국대결공조를 노린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은 매우 일층한 단계에 들어섰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해마린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뜨인 일제의 과거죄악은 덮어놓고 《새로운 협력》이니, 《역사문제와 안보문제》의 《분리대용》이니 하고 떠돌아다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반공화국대결을 위한 공조협력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이전시기

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까지 서슴없이 체결하였는가 하면 지어 일본군성노예문제와 독도문제에서도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당국의 자제에서는 조급도 말라잡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녀회담》이니 뭐니 하며 우리 민족의 백년속적과 손을 맞잡고 배극적추태를 부린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가 하면 밖으로는 일본에 추파를 던지고 안으로는 역사교과서《국경외》강령행동으로 과거 일제의 죄악을 감싸고 미화하려 하면서 친일매국노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있다.

지난날 폐척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울사5조약》도 침략책에 남조선보수당국의 굴욕적인 친일망동이야말로 일제의 피비린 식민지파쑸정치에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온갖 불행수를 강요당한 수많은 동포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며 일본의 선근한 사회와 과거죄악을 요구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침략자와 매국노가 한데 어울려 날치는 곳에서는 민족의 자주권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외세의 발골밑에서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피의 교훈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은 침략적인 외세와 그와 합학하여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노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지속의 력사는 되풀이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일본반동들의 과거죄악과 제침략책, 남조선보수당국의 친일시대때공약들 조급 무과하지 않음으로써 겨레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괴의 원한을 반드시 출고야말것이다.

김 향 미

남조선 인민들 열렬히 동경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처음으로 주체의 녀성해방론을 창시하시고 실현하시어 수수천년 역사 밖에 밀려나 수난당하던 녀성들을 남성들과 나란히 역사의 한복판에 당당히 세우셨다.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력사의 한쪽수레바퀴로 규정해주시고 그들을 사회분업과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시는 주석님의 은덕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녀성의 존엄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그들의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행사되는 이북은 정녕 녀성들의 낙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한 노교원은 이북에서는 봉건적질곡과 불평등한 사회제도에서 정치적우월리와 권력속에 시달려온 녀성들이 친연, 과학자, 예술인, 의사로 일하면서 인종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이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서 김일성장군님께서 녀성들을 내세워주셨기때문이라고 격경에 넘쳐 말하였다.

한 학교있는 장군님께서서는 서문 글씨로 써올린 어머니들의 편지도 친어머님의 심정으로 보아주시고 당연한 일을 한 녀성들에게 파분한 감사도 주시며 자식들이 영웅이 되고 박사사 되던 그 은공을 어머니들에게 돌려주시고 친히 어머니를 사랑하던 신분까지 보내주셨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녀성들을 부러워하는 남조선녀성들의 마음은 《명도자님의 친어머이사람속에 이북녀성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애국자로 떠받들려우고있다.》고

한 향주의 강진주녀성과 《북의 어머니들은 열정에 넘쳐 명도자의 사랑의 품을 노래하고 생활을 노래하며 미래를 노래하고있다.》고 드로한 미래음악회 회원 김유정의 글에도 그대로 이었다.

오늘 남조선 녀성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정치를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녀성들의 삶은 더욱 빛을 뿌릴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있다.

《남조선 녀성들이 이북의 낙원인 서울과 평壤에서 이 땅의 녀성들을 보듯해줄 진정한 품은 오직 공화국의 품이다.》, 《이남 녀성들도 만민이 사랑하는 북반은 꽃으로 활짝 피어나자면 6.15공공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공화국이야말로 녀성들의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라는것을 진리로 새겨안은 남조선녀성들은 태양의 품에 안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조국통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전쟁국가 일본을 경계하여야 한다

일본국내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얼마전에도 수천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리면서 현 당국이 《집단지사위권》을 용인하고 《사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 《안전보장관련법》을 당장 폐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은 광범한 사회적 여론, 야당과 집권자단체에서도 전쟁을 불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을 폐지하라고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안전보장관련법》으로 하여 불거지하게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게 된 일본민들의 불안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일본의 정책들은 마땅히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심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것을 보면 완전히 반대이다. 《안전보장관련법》이 《국가보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것》이라는 잡소리를 꿰쳐대며 무력중립정책을 더욱 강력적으로 매어달리고있다. 며칠전에 그들은 고베시 주요구에서 해상《사위대》의 최선에잠수함 《세키호》를 진수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공조로 개발하고있는 해상유척시비인 《SM-3 블록 2A》의 시험시행을 단행하고 실전배치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저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사태 발전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안전보장관련법》과 무력중립정책 동시 그 누구의 《위협》으로 부러워할 방위를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납득시킬수 없는 꾀변이다.

세상에는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분석가들도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없는데 일본이 무엇때문에 이처럼 집요하게 무력중립에 매어달리는가고 의혹을 표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썩어말하면 그들은 방대한 무력으로 임의의 시각에 아시아세력의 길에 뛰어들려 하고있다.

아시아를 제패하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목표이다.

이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아시아지배를 노린 《대동아공영계획》을 실현해오려고 미쳐달려다가 패망의 수치를 당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메망하게 된것은 힘이 약했기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오래전부터 무력을 증강하면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술한 과학기술력량과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쏟아부으면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끊임없이 개발, 생산하여왔다.

최근엔 군사대국화책동으로 《사위대》는 대규모목적이며 현대적인 정무무력으로 자라났다. 지어 일본은 미국의 특인비호 밑에 핵무기를 제작, 보유, 사용할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었다.

이미전에 미국은 일본의 핵무기보유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일본의 고위정책자들은 그들이 마음먹은 순간에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뼈저리 시인하였다.

일본은 무시할수 없는 위협한 전쟁세력을 보 되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여기에 만족해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해외침략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힘의 지속

과 그에 필요한 사회적분위, 공고한 법적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고있다. 바로 그래서 《안전보장관련법》의 정당성을 제창하여 것처럼 무력중립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아시아정복을 위한 침략의 길에 뛰어든다는것은 결코 예측이나 가설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시간문제이다. 이미 그 조건은 성숙되었다. 《사위대》 무력은 아시아나라들과 가까운 서부일본에 집중전진배치되었다. 《일미방위협력법》과 《안전보장관련법》개정으로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지 《사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지사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일본의 《집단지사위권》행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일본은 20세기 전반기에 인류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뜨우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막대한 후과를 끼친 전쟁국이며 패망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버리고있는 전쟁국가이다.

이런 일본이 다시 침략의 길에 나선다면 일본국민들과 아시아인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참화를 입게 될수 있다.

현실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침략전쟁을 꾸미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급도 늦추지 말고 예리하게 주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이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정찰한 정보를 바라는 나라라면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리 학 남

남조선당국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개선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평양 11월 18일남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문제에 놓고 히든 여론을 내뿜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18일 조선중앙통신기자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당국회담과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 문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얼마전 금강산에서 열린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 북남사이에서 회담교섭과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있는것은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에서 비관론을 내세우며 남조선당국이 회담교섭을 부러워하는 등 동족대결소용이 그칠새없이 벌여지고있다.

지어 남조선당국은 북남합의에 따라 활기를 띠고있는 민간 교류마저 못마땅해하면서 부당한 구실을 붙여 각방으로 회담을 놓고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북남합의정신을 탄핵하여 유린하고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것으로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8월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대화를 펴내도 그 진정성에 대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북남관계는 그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속에 없는 장애난을 부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결자세를 버리고 대화의원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고있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자기 할바를 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집권자는 해외를 쏘다니며 외세에 《북핵공조》를 구걸하는 수직스러운 놀음에 매달리고있는가 하면 남조선안에서는 온 겨레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국경외》 놀음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적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행수진되는 등 동족대결소용이 그칠새없이 벌여지고있다.

지어 남조선당국은 북남합의에 따라 활기를 띠고있는 민간 교류마저 못마땅해하면서 부당한 구실을 붙여 각방으로 회담을 놓고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북남합의정신을 탄핵하여 유린하고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것으로 된다는

미국은 조선에서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로씨야신문 《프리부나》가 최근 《미국은 조선에서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까밝히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미국이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서 조선의 평화형성정책을 기꺼워하고 하던 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정치의 침략적이면 반민주주의적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의 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먼저 미식업 및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체제를 바꾼 다음에야 평화형성정책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일것이다.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가혹한 제재와 정치군사적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러차례 평화형성을 체결할데 대해 제안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제안이 그 어떤 용화, 후회를 얻어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있다.

조선과 미국은 1950년-1953년 군사대결시기부터 현재까지도 전쟁상태에 있다.

조선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평화형성을 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유관국들도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적과정에 협력하려고 시도하고있으나 모든것은 헛수고로 되고있다.

미국은 모든 제안을 부정하고 반대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조선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소유하고있으며 침략에 굴복하

여 절대로 무장해제하러 하지 않는다.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자그마한 우발적인 사건이 삼시에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번졌던 지난 8월의 조선반도정세는 현 정전협정으로는 더이상 총돌과 전쟁위험을 막아낼수 없었다는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해주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한 번 긴장이 격화되어 군사분계선상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남조선도 통제할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과 리를 결정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을 모든 면에서 실행시켜야 한다는것이 조선이 찾게 된 결론이다.

미국이 사이버공간을 《제5의 전쟁수단》으로 규정짓고 남조선과 대결할수 있다.

미국은 하늘과 땅, 바다, 우주뿐만아니라 사이버공간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쟁마당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그것이 스텔라에신론 《다겐스 나메레트》가 미국이 2010년에 사이버공격프로그램 《스톡스네트》를 보강한 새로운 악성프로그램 《마스크》를 개발하여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는 사실을 폭로

중국에서 위성 발사

중국에서 최근 《원격탐사위성-28》호를 쉘출려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켰다.

사이버전쟁의 서막을 열어놓은 범죄대국

로스기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문명수준은 보다 높고이 세계의 면모는 날로 개변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나라들사이의 편가와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해주었다.

인류는 선진과학기술발전을 공동의 번영을 위한데로 지향시키고있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게 인류의 과학기술발전성과까지 전쟁수단으로 삼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는 세력이 있다. 다음이던 미국이다.

미국이 사이버공간을 《제5의 전쟁수단》으로 규정짓고 남조선과 대결할수 있다.

미국은 하늘과 땅, 바다, 우주뿐만아니라 사이버공간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쟁마당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그것이 스텔라에신론 《다겐스 나메레트》가 미국이 2010년에 사이버공격프로그램 《스톡스네트》를 보강한 새로운 악성프로그램 《마스크》를 개발하여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는 사실을 폭로

미국에서 위성 발사

미국에서 최근 위성 발사선에서 《장정-4》호(을)을 반로케트에 탑재되어 발사

사이버전쟁의 서막을 열어놓은 범죄대국

로스기 과학실험과 국토자원조사, 농작물수확과관정, 제해방지 등 여러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핵시설의 내부운영체제를 결취하였다.

한편 2010년에 《스톡스네트》를 보강한 새로운 악성프로그램 《마스크》를 개발하여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로 하여 그해 6월 이란의 나란핵시설에 설치된 원심분리기중 1000대가 일시 가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시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저들의 행동을 철저히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입이 아르게 떠들어왔다.

그러나 자부심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미국의 한 기자는 세계의 사이버전쟁에 관한 도시에 미국이 이란핵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세계적인 새로운 사이버전쟁의 서막을 열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가안보보장국 요원이었던 스노우엔 역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악성비서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사이버공격의

여성들에 대한 폭력행위 성행

에스파냐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날로 우습해지고있다.

이스라엘에서 최근 팔레스타인민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0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안지역의 베히레베 협시부대에 있는 한 초소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날 나탈루스에서도 37살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살인만행

남 무고한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12일에도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안지역의 베히르베시에 한 병영에서 적을 가 27살 남 팔레스타인인에게 사격을 가

미국에서 폭력행위 성행

미국에서 폭력행위 성행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수가 12만 6740여명에 달하였다.

미국에서 폭력행위 성행

미국에서 폭력행위 성행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수가 12만 6740여명에 달하였다.

미국에서 폭력행위 성행

미국에서 폭력행위 성행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수가 12만 6740여명에 달하였다.

미국에서 폭력행위 성행

미국에서 폭력행위 성행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수가 12만 6740여명에 달하였다.